

제 2차 KoreaMed MeSH Workshop 토의 내용

1조 : KoreaMed MeSH 사업에서 각 학회 MeSH 담당 위원의 역할

1)저자가 제시한 용어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조 : KoreaMed MeSH 사업에서 의학 사서의 역할

- 1) MeSH 사업을 했을 때 의사와 사서간의 feedback을 위한 지속적인 채널이 필요함 (사서의 의학지식부족으로 MeSH Term의 미묘한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의사의 감수 필요).
- 2) 사서개인과 근무하는 기관사이에 MeSH 작업을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3) 의학사서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일원이며 의학도서관과 KoreaMed 기관간의 공조를 위한 협정이나 제도적 장치 필요.
- 4) 각 병원마다 특성화된 병원에 분배하도록 (산부인과병원에는 산부인과학회지 분배)
- 5) MeSH 색인 했을 때, 저자 스스로 MeSH Term을 부여하는 것이 묘안이지만 의학사서나 전문색인가가 부여하는 것도 차선택이 될 수 있다.
- 6)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부하기로 결정함.

3조 : KoreaMed MeSH 사업에서 시스템의 문제 (색인 방법, 피드백, MeSH 창 등 문제)

- 1) PubMed에서는 Indexer가 작업하지만, KoreaMed에서는 인적, 시간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각 학회별로 분담 필요.
- 2) 현실은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MeSH Term을 쓰라고 하지만 거의 하지 않음.
- 3) 체계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KoreaMed에서 필수사항, 권고사항을 정해주고, 일반저자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회별로 1-2명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 4) 의학적지식을 가진 의사들과 분류작업에 익숙한 의학사서에게 학회지 몇 개를 할당하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좋음.
- 5) PubMed의 MeSH Tree를 도입하는 것에는 프로그래머, PubMed와의 문제가 있음.
- 6) Check tag는 제외하고 주제에 해당하는 MeSH Term만 넣는다. 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국내 현실에 맞는 check tag 도입후에 추가작업을 하기.

4조 : MeSH 색인의 깊이 (subheadings, Major headings, check tags, Publication type, 색인 개수 등)

- 1) 각 학회가 Korean J Parasitol의 방식으로 MeSH Term이 아닌 것은 feedback 하는 등 학회측의 대응이 필요함.
- 2) 각 학회에서 논문작성법과 MeSH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workshop 개최 필요.
- 3) KoreaMed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해할 수 있는 깊이로 main heading과 subheading만 제대로 해서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 4) MeSH Term을 부여하기 전에 국내에 속한 term은 이와 유사한 MeSH Term을 사용해서 추후에 보강하도록 하자. MeSH term은 국내여건을 반영한 추가 작업 필요.

종합토의

MeSH Term의 필요성이나 실천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workshop을 개최함 (조 승열 회장)

- 1) MeSH 색인이 필요한가?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 2) MeSH Term을 대충 부여한 후에 나중에 보강하는 것은 낭비임.
- 3) Check Tag는 저자가 체크하는 방법도 있음
- 4) 누가 할 것인가?
 - (1) 일반저자에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학회차원 (편집위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전문색인가 2명을 훈련시키는 방법 (KoreaMed)
 - (3) 일반저자가 하는 방법. 각 학회에서 MeSH Term (Index Medicus가 아님) 사용을 투고규정에 넣도록 한다.
 - (4) 보통 한 호당 20편의 논문을 출판하는 각 학회에서 MeSH Term 입력을 위해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은 부적당함.
- 5) 앞으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어떻게 의편협에서 할 것인가 확인한 것은 아니나 가능하다면 참여 원하는 전문가 집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한, 필요하다면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의학주제명표목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거나 그곳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다.